



# 도전하는 자세로 미래를 열자

우리농업 살리기 위한 '신념의 씨앗' 가슴에 정성스레 심고  
스스로 변화하고 경쟁통해 사는법 터득하는 의식전환 있어야

■ **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히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치도록 당부하였다고 한다.

유난스런 겨울추위와 폭설로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붕괴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나, 구제역과 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위축은 차라리 어쩌다 일어난 재해였다고 치자.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값싼 해외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폭은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가운데, 국내농산물은 마땅한 팔데(市場)를 잃고 전품목에 걸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농가부채는 이미 농업소득을 훌쩍 초과하여 전체 농가소득의 80%를 넘어섰으므로, 농업경영비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말해서 전체 농가는 이미 부도(不渡)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급해진 정부의 농

가부채경감 대책에 의해서 이자율 경감과 상환기일 연기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 어디에다 내다 팔아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현재의 농사를 확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그만 두어야 할 것인지... 농가들의 시름은 끝간 데가 없다.

6.25동란때 중공군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한만국경에서부터 한미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하던 때의 일이었다. 후퇴와 후퇴를 거듭하던 나머지 지쳐서 길가에 쓰러져 버린 어린 미군 병사에게 한 중군기자(Life 誌)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 병사는 기자의 부축을 뿌리치면서 힘없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



오(Give me tomorrow).” 만약 내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힘이 부치더라도 후퇴하는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죽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에게 내일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이다. 오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일への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산다. 그러므로 인간은 밥을 먹고사는 게 아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농업, 내일 있나?

한국의 농지값은 경쟁상대국(미국)보다 20~30배 비싸고, 인건비도 경쟁상대국(중국)보다 10배이상 비싸다. 게다가 영세한 경영질서 속에서 농가들의 경영마인드마저 취약하다. 그러므로 자원부존조건에 의존한 전통적이고 평균적인 시각에서 말할 때, 글로벌(Global)경쟁시대에 처한 한국농업의 비전은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경기미는 다른 지역 쌀보다 15~20% 정도의 높은 값으로 잘 팔리고 있다. 일본 수출용

딸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경남의 한 작목반에게는 판로걱정이나 농가부채 문제란 이미 남의 이야기이다.

감귤 중에서 가격이 낮은 대과(大果)만을 선별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값이 좋은 중·소과는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제주의 한 작목반에게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기 어렵다.

병아리 부화에서부터 사육, 그리고 사료생산에서 계육가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경영함으로써 생산비와 물류비를 대폭 절감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향하여 큰 발을 내딛고 있는 전북의 H기업에게는 국경장벽을 허물어 뜨리는 WTO협정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배, 단감,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일수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심지어는 갯잎, 버섯류의 미국 수출을 당당히 해내고 있는 농업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

야속한 하늘과 무심한 정부를 원망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평균적인 농가의 자세와, 희망에 벅차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농



“

이제 새 봄이다. 한국농업을 살려내겠다는 신념의 씨앗을 우리들 가슴마다 정성껏 심어야 한다. 집요한 시장개방 요구에 응전(應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는 것만이 한국농업의 내일을 여는 자세인 것이다.

”

업인의 자신에 찬 자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의 차이일 것이다.

진화론(進化論)을 주장한 찰스다윈은 그의 유명한 저서 「종(種)의 기원」에서 “지구상에 살아남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중요한 특징은 공룡의 소멸에서 보듯이 강력한 힘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적응능력”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비단 생명체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마저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면 품질과 서비스경쟁력을 보완하여 글로벌(Global)경쟁시대에 나서고 있는 농업인, 규모의 경제성(Scale Economy)에서 처지는 약점을 범위의 경제성(Scope Economy)으로 보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농업인, 대량생산체제 하의 값싼 농산물이 경쟁하는 국제시장의 틈바구니에서 빛어지는 틈새를 고품질 고가전략으로 공략함으로써 입지를 넓혀가는 농업인들의 자랑스런 자세야말로 한국농업의 내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세계가 황금시장이라 칭하며 부러워하는 견실한 내수시장(內需市場)

이 있다. 값싼 해외농산물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맛이나 건강에 좋은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수요에 바탕을 둔 내수시장이야 말로 한국농업의 일정수준 유지를 담보하는 보루인 것이다.

비록 수입개방으로 내수시장의 상당부분을 해외농산물에게 빼앗기고는 있지만, 잃고 있거나 잃게될 내수시장의 몫(Share)만큼을 농산물의 해외수출로 얻어내는 데 한국농업의 활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이웃에는 식생활 기호가 비슷한 인구 1억2천만명의 일본시장이 있다. 중국인구의 2%(2천 5백만명)에 해당하는 고소득층도 고품질 농산물의 훌륭한 잠재시장이다. 전체 청과물시장의 70%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동포상인들을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농산물시장 역시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진입해야 하는 새 시장이다.

우리에게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4계절이란 뚜렷한 기후조건이 있고, 드럼통을 두드려 만든 철판으로 자동차를 조립하여 미국시장으로 수출했던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을 수 있다면 어찌 한국농업의 내일이 없겠는가?

## 새로운 시장 열기위해 도전에 나서야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절대빈곤시대 이래로 우리는 오로지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왔다. 맛이니 향기니 색깔이니 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였다. 오로지 크고 많이만 생산해서 굶주림을 모면하는 일만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선두에 나서서 심을 품종과 생산주체를 결정하였다. 비료, 농약, 농사자금을 대주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적인 증산농정 속에서 농가들의 정부 의존도는 높아갔으며, 이 결과 시장을 지향하는 경영마인드는 싹트기 힘들었다.

이러한 풍토에 시장개방의 태풍과 함께 문득 농산물 공급 과잉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여태까지는 증산만 하면 곧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졌지만, 현재의 과잉생산은 가격폭락으로 이어져서, 소득은 감퇴하고 당연히 농가부채는 쌓여가는 기막힌 악순환의 과정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시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게된 농사시대에 농민들이 빠지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 선택되면 살아남고 시장에서 외면당하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격이나 품질, 그리고 서비스로 국내외의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문득 열린 것이다.

물론,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증산농정의 낡은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부만능적인 접근자세도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 모든 농정수단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뚜렷한 원칙 하에서 부족한 시장을 열어주고 시장신호를 보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아울러 시장에 방임했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농업생산의 식량안보나 홍수조절 등의 소위 공익적기능 (Multi-Functionality)을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형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보완적인 다양한 소득직불제도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열린 시장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변화하면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는 길 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농약산업도 변해야 한다. 증산농정 하의 다비다농약(多肥多農藥)시대에 편승하여 살던 시절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다. 이제는 환경친화적인 농약을 개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코팅제를 비롯한 수확후 처리 약제를 개발하여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의 노예생활을 탈출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는 40년에 걸친 황야의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도록 개척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패배의식에 젖어서도 안된다. 정부의 시혜(施惠)를 고대하면서 일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입지가 발밑에서 서부터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새 봄이다. 한국농업을 살려내겠다는 신념의 씨앗을 우리들 가슴마다 정성껏 심어야 한다. 집요한 시장개방요구에 응전(應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는 것만이 한국농업의 내일을 여는 자세인 것이다. **농약정보**